

유기적으로 통합된 세계로의 지향, 중앙유라시아의 비상을 꿈꾸며

[서평] 김호동(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71쪽.

윤 은 숙*

1. 들어가며

“모든 역사는 땅 위에 기록된다.”는 조르주 뒤비(Georges Duby)¹⁾의 말처럼, 역사는 공간과 시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단정해도 좋을 정도로 공간성을 필요로 한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에 학계를 중심으로 역사지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는 사계절에서 출판한 다섯 번째 아틀라스 시리즈로 중앙유라시아라는 다소 생소한 지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중앙유라시아(Central Eurasia)는 지리적으로 서쪽의 흑해 북방 초원에서 동쪽으로 싱안링산맥,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남부의

* 강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조르주 뒤비 지음, 채인택 옮김, 『지도로 보는 세계사』, 생각의 나무, 2006, 서문.

삼림지대, 남쪽으로 힌두쿠시 산맥과 티베트 고원에 이르는 지역을 포괄한다. 현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과 몽골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다.²⁾ 영국의 지리학자 맥킨더(H. J. Mackinder)는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해 ‘핵심지역(heartland)’³⁾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기존의 아틀라스 시리즈가 한 지역 또는 하나의 문화권을 중심 주제로 다뤘다면⁴⁾ 이 책 안에는 초원·사막·오아시스·실크로드·유목민과 정주민 등의 거의 모든 지리적 개념과 문화권이 등장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세계사가 되고 있다. 광대한 지역의 역사를 다루는 만큼, 이 책의 집필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돌파해야 할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저자도 처음 고민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책의 완성까지 8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밝히고 있어서, 그 어려움이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중앙유라시아라는 광범위한 공간과 그 위에서 살아온 인간의 시간을 제대로 담아내려는 저자의 고민과 집념 그리고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값진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김호동 교수는 중앙유라시아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몽골제국과 고려』, 『황하에서 천산까지』 등의 저술은 물론이고, 원전사료들인 라시드 앳딘의 집사 3부작인

2) 피터 퍼듀(Peter C. Perdue)도 중앙유라시아를 내륙아시아나 중앙아시아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재의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단순히 구분된 영역에 불과하므로 문화적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피터. C. 퍼듀 지음, 공원국 옮김, 『중국의 서진 -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도서출판 길, 2012, pp. 13-14).

3) Mackinder, H. J.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in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Norton and Company. New York, U.S.A., 1962.

4) 『아틀라스 세계사』(지오프리 파커 저, 김성환 옮김, 사계절, 2004)의 경우는 세계사를 서술하고는 있으나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기보다는 개설적으로 기술한 측면이 강하므로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부족지』, 『칭기스칸 기』, 『칸의 후예들』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및 『몽골제국 기행』 등을 역주해서 중앙유라시아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중국사의 그늘에 가려져 야만적 문명의 파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던 몽골제국의 역사를 유라시아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저자는 세계사의 주역은 농경민과 유목민의 두 축으로 이뤄졌으며, 유라시아 각 지역이 그 이전의 상대적인 고립성을 극복하고 유기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몽골제국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⁵⁾ 몽골제국 꼬트머리의 씨줄과 날줄을 잡고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평자로서는,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김호동 교수의 탁월한 혜안과 천재성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김호동 교수의 탁월한 저작들을 읽고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감사할 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내외의 최근 연구 성과를 총망라하여 소외된 인간, 시간과 공간에 대한 냉철하지만 따뜻한 특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중앙유라시아라는 광범위한 지역의 역사를 유목-오아시스 문명권이라는 틀로 묶고, 이를 통시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2. 유목-오아시스 문명권, 유기적으로 통합된 3,000여 년의 시공간

이 책의 구성상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 주제가 두 쪽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설명되는 구조이다. 각 주제에는 하나의 중심지도가 제시되어 내용을 압축적이며 입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저자는 ‘아크맵’이라는 지도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도와 위도가 정

5) 김호동 지음,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확하게 입력된 지점들에 지명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지도를 직접 제작했다고 한다. 물론 이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축적된 저자의 사료해석과 지리고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직접 지도에 구현하려는 열정 때문일 것이다. 둘째, 매 주제마다 첫머리에 연표를 제시하여 해당 주제가 차지하는 시대적 위치를 개괄하고, 관련 도판과 그에 따른 설명을 삽입해서 본문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복잡함과 모호함 때문에 작성하기 힘들었던 유목군주들의 계보를 22개의 도표로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의 주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고 있다. 셋째, 각각의 지도에는 시간별 추이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중앙유라시아는 농경 정주국가와 달리 역동적으로 이동하는 역사 주체들에 의해 국가가 존망했기에 이들의 이야기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종 화살표들은 변화무쌍한 유목-오아시스민들의 이야기를 용이하면서 역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넷째, 지형도가 중심지도에 포함되어 있다. 지형 요소들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는 인문환경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형적으로 조밀하고 평탄한 특성을 가진 농경문화권과 달리, 광활하고 고도가 비교적 높은 유목-오아시스 문화권을 지형도로 표기해주면 전통시대 국가의 형성이나 집단들의 이합과 집산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서 지도만으로도 중앙유라시아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책은 중앙유라시아 3,000여 년의 시간을 총 다섯 개의 시대로 구분해 서술하고 있다. 시기별로 선별된 주제는 <고대 유목국가> 26, <투르크 민족의 활동> 18, <정복왕조와 몽골제국> 25, <계승국가의 시대> 13, <유목국가의 쇠퇴> 14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장 <고대 유목국가>와 3장 <정복왕조와 몽골제국>에 조금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 고대의 경우는 중앙유라시아의 전형적인 특징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이러한 특징이 이 지역 역사 전개의 중요한 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복왕조와 몽골제국>은 전체로서의 세계사가 탄생하고 중앙유라시아의 세계사적 의의가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므로 서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주제별로 보자면 ‘인구어족의 이동’부터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점령’까지 96 주제와, 프롤로그 및 21세기 중앙유라시아의 현상을 다룬 에필로그를 포함하면 총 9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고대 유목국가>에서는 유목민의 출현으로부터 유라시아 초원의 서쪽과 동쪽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국가를 건설한 스키타이와 흉노가 주변의 정주 농경세계와 어떤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세계 어느 곳에 있던 동물을 순화해 이를 경제단위로 활용하는 유목국가들은 그들만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유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1장에서는 흉노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호(胡)란 중원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생활방식과 관습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다고 규정하였다. ‘장건과 실크로드’에서는 사마천이 장건의 활동을 전대미문의 경지를 개통했다며 ‘착공(鑿空)’으로 표현한 것이나 ‘황하의 근원에 도달했다(窮河源)’고 한 것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흉노와 한 사이에 체결된 ‘조공체제’의 허와 실을 조명하면서, 흉노는 한에 대해 명분에 불과한 정치적 복속을 표방하는 대신 막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음으로서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수단을 쓰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흉노와 한의 조공 관계라는 것의 실상이 실리와 명분의 교환이었기에, 주례적(周禮的) 질서를 현실 속에서는 관철시킬 수 없음을 왕망(王莽)정권의 소멸로 잘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4-6세기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이 민족대이동을 통한 대변동을 일으키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쪽에서 훈족과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프랑크 왕국의 건설로 이어지듯이, 동쪽에서는 흉노와 한 제국이 분열·약화됨에 따라 남흉노와 선비·오환 등이 중국 북

방으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이러한 민족대이동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유라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유목적 요소와 농경적 문화가 융합되는 호한체제(胡漢體制)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총 3장의 지도를 통해 유라시아 동쪽의 민족이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선비가 원거주지인 알선동(嘎仙洞) 수렵지대를 떠나 초원을 거쳐 중원의 평성과 낙양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지도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제2장 <투르크 민족의 활동>은 6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중앙유라시아 역사를 다루고 있다. 흉노에서 돌궐로 그리고 몽골제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목국가의 규모는 점점 더 팽창했고, 세계사의 통합에 기여했던 역할도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흉노는 ‘동부 유라시아형 유목국가’이고 몽골은 ‘유라시아형 세계제국’이며 흉노와 몽골의 매개자였던 돌궐은 ‘중앙유라시아형 유목국가’라고 성격을 정의한 바 있다.⁶⁾ 여기서는 서쪽으로 알타이 산맥을 넘지 못했던 흉노의 한계를 극복한 돌궐이 알타이와 파미르를 넘어 카스피 해까지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몽골제국에 앞서 중앙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선도 모델이 되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6-9세기 유라시아 대륙에서 활동했던 국제무역상인 소그드인들이 돌궐제국과 일종의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었고 보았다. 돌궐제국이 건설한 중앙유라시아 세계에서 소그드인들은 중국-페르시아-비잔티움을 잇는 국제교역을 장악했고 중국산 비단을 서방으로 서방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 마니교와 기독교 등을 동방으로 넘겨주며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세계를 만드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기존에 경제적 역할에만 한정했던 소그드인의 활동을 외교·군사 방면으로 확장시켜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소그드인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돌궐·위구르 혹은 북조·수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

6) 김호동, 「‘변방사’로 세계사 읽기: 중앙유라시아사를 위한 변명」, 『역사학보』 228, 역사학회, 2015, p. 66.

했다고 한다. 아울러 소그드의 주요 도시들과 유적지를 지리좌표로 제시하고 그들의 도시였던 타지키스탄 영내에 있는 판지켄트(Panjikent)의 생활모습을 자세히 복원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사적인 역할에 비해 베일에 싸여있던 소그드인의 실생활을 고증을 통해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개 이동이 필연이었던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어쩌면 타자(他者)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정주 농경세계가 남겨놓은 단편들을 퍼즐처럼 맞춰 놓은 것이 유목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투르크와 위구르 문자의 등장과 그들이 남긴 비문기록들은 균형 잡힌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상을 복원하는데 절대적 요소라 하겠다. 저자는 돌궐비문과 위구르 비문의 위치를 지리 좌표로 표시하고, 빌게 카간 사당 복원도를 통해 비문이 그들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확실히 전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구르 시대에 건설된 대형 성곽 도시들은 돌궐제국 이래 독자적인 문자창제와 함께 유목사회가 초원에 만든 정주문명의 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제3장 <정복왕조와 몽골제국>은 10세기 정복왕조의 등장으로부터 14세기 몽골제국의 흥망까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비트포겔의 분류에 따라 거란과 여진을 정복왕조로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라시아 서부 왕조들을 정복왕조로 규정하는 것은 독특한 시도이다. 저자는 거란제국의 등장이 당제국의 쇠퇴와 위구르 제국의 붕괴로 인한 힘의 공백상태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아바스 왕조의 동요가 시작되면서 서부 유라시아 유목민들이 이동한 결과 군사적 정복왕조가 출현했다고 본다. 이 주장은 정복왕조를 중원왕조와의 관계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정복왕조의 등장이 대제국 붕괴 이후 군사집단에 의해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몽골이다. 몽골부분은 ‘몽골계의 이동’으로부터 ‘세계제국의 붕괴’까지 19 주제로, 전체 주제에

서 거의 20%를 차지한다. 이처럼 몽골제국을 여러 주제로 나눈 것은 그만큼 중앙유라시아에서 몽골의 위상과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는 9세기 중반 위구르 제국의 붕괴 이후 몽골초원의 새로운 주민이 된 몽골계 선주민인 몽올실위(蒙兀室韋)의 이주 경로를 화살표를 이용해 지도에 표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몽올실위가 흥안령(興安嶺)에서 부르칸 칼둔(Burqan qaldun)으로 서천(西遷)한 것을 지형도만으로 해석하면 산에서 산으로 이동이 된다. 이는 수렵·유목민으로 출발한 몽골 선주민들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역사지도가 주는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저자는 몽골 선주민의 이주를 9세기 후반으로 보는 기존 견해와 함께 매장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는 최근의 발굴성과를 반영해 이들이 11세기까지도 원거주지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몽골제국의 출현으로 성취된 세계사의 탄생은 몽골제국의 영역 내부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던 유럽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게 했다고 보았다.⁷⁾ 이로서 흉노에서 돌궐로 이어지는 일련의 발전과정이 몽골제국에 이르러 유목으로 유기적 통합을 이룩한 세계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로 인해 중앙유라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이 몽골이라는 공통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팍스 몽골리카는 몽골의 마이너스적 이미지를 단번에 일갈하고, 세계 문명사에서 몽골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팍스 몽골리카로 인해 촉발된 대여행의 시대는 지리지식의 확충과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와, 15-16세기 대항해의 시대를 선도했다는 점에서 인류 문명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시의 주요 여행가들인 카르피니, 루브룩, 마르코 폴로와 랍반 사우마

7) 김호동, 2010, p. 245.

등의 여행경로를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지리 좌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팩스 몽골리카와 대여행의 시대의 유기적 작용은 세계지도의 출현으로 이어졌으며, 조선이 만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는 몽골시대에 확대된 세계인식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하였다.

칭기스 칸으로부터 남송의 수도 임안(臨安)정복까지 계속된 세계정복전의 결과, 몽골은 2,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넓은 육상제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몽골이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몽골의 성공을 다음의 4가지 이유에서 찾고 있다. ① 기동성이 뛰어난 기마군대의 탁월함, ② 정복민의 기술과 인력 및 재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성전과 수상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 ③ 천호조직·친위병제·법령 등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지배층의 내적 결속을 다진 것, ④ 칭기스 칸과 계승자들의 탁월한 리더십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몽골 승리의 원인을 여러 논리로 역설하였지만 결과론적 분석에 머무르는 느낌이 강했다. 저자의 분석은 군더더기 없이 짚고 함축적이면서 유목적 순수성에 좀 더 근접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유목국가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내분문제에 대해 저자는 내분의 시작을 톨루이 가문의 쿠데타에서 찾고 있다. 몽케와 쿠빌라이의 즉위는 탈취로 획득된 것이기에, 이에 반발하는 우구데이·차가타이 가문의 반격과 옷치긴 가문의 나안반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카이두, 아릭부케, 시리기, 두아와 차파드 등 제왕들의 이합집산 과정을 4장의 지도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의 지명이 한 논문의 주제가 될 정도로 논란이 분분했던 쿼 생기르, 웅긴, 바스키와 시르겐 나우르 등이 저자의 철저한 고증을 통해 지리좌표로 구현되는 것을 보며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카안 울루스를 정점으로 하는 ‘울루스 체제’가 제국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제국이 붕괴될 때까지 존속하였기에, 여러 개의 계승국가로 분열되지 않

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13세기 중반 이후 1세기 동안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저자는 ‘고려-몽골 왕가 혼인 관계도’를 통해 정치·경제·문화적 요소들에서 밀접히 연동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고려와 몽골의 외교 교섭이 한자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봉-조공’관계로 보여 지지만, 고려 국왕은 속국 군주가 아니라 부마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려 국왕은 제국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영토와 백성을 갖고 있는 군주인 동시에, 칭기스 일족의 부마로서 제국 내부에 존재하는 제왕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을 전제해야만 고려-몽골의 관계를 다원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제4장 <계승국가의 시대>에서는 포스트 몽골시대인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중앙유라시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포스트 몽골시대에 대한 흔한 오해는 대원제국 소멸 이후에 몽골은 분열되어 이전의 부족단계로 돌아갔고, 간헐적으로 명조의 변경을 침략하는 약탈자로 전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동몽골 대칸의 계보도’를 제시해 그들이 부족단위로 분열되지 않았고 몽골제국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통합을 시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37년의 재위 기간 동안 다얀 칸은 응집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분권적 경향을 타파하고 대칸 중심의 중앙집권화를 실현했다. 그는 지배에 편입된 6만호를 좌·우익체제로 재편함으로서 통일국가의 면모를 유지했고, 이 체제는 몽골 유목민의 정치적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알탄 칸의 군사 활동을 지도상에 시기별로 표기함으로써 변경 약탈자에 불과하다는 한자 기록의 허구를 꼬집고 있다. 게다가 1571년의 몽골과 명의 협약을 몽골의 ‘칭신내속(稱臣內屬)’의 결과라고 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조약은 조공체제를 인정하는 대신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흉노 이래 유목세계의 전형적인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차가다이 울루스를 모태로 서아시아 및 킵차크 초원에 이르

는 광대한 영역을 정복한 티무르 제국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티무르가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대몽골 울루스의 재건이란 슬로건 아래 통합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중앙유라시아의 유목국가들의 종교 수용에 주목해, 돌궐·거란의 불교, 위구르의 마니교, 몽골·청의 티베트 불교와 카라한·티무르의 이슬람교 신봉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14~17세기에 이르면 티베트 불교와 이슬람교가 중앙유라시아에 폭발적으로 전파되어, 이 지역의 정치적 정통성이 종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5장 <유목국가의 쇠퇴>에서는 17세기로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청제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신의 신청사 연구 성과를 반영해 청제국과 몽골·오이라트의 관계 및 청과 러시아의 충돌과 화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홍타이지가 립단 칸의 아들에게로부터 전국새(傳國璽)를 받고나서 국호를 ‘다이칭 구룬(Daicing Gurun)’으로 바꾸고 대원(大元)의 적통임을 선포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사강 세첸의 『몽골원류』에서도 누르하치를 칭기스 칸의 정치적 계승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제국은 만·몽 연합정권의 성격을 지녔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준가르의 군주들이 ‘칸’이 아니라 2인자를 의미하는 ‘홍타이지(Hongtaiji)’를 자칭한 것은, 칭기스 일족이 아니면 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증거이므로 이들을 준가르 칸국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신강(新疆)을 주목하며, 청이 이곳을 내지의 성체제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몽골·티베트·만주 등지와 함께 특별 군사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청의 몽골지배 역시 중국 내지의 지배방식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것은 연맹과 협력에 기초한 동반자적 관계였다고 한다. 다만 몽골에게 청의 황제는 대원의 적통이므로 ‘카안’이었고 청은 ‘우리들의 대청’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았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청 황실과 몽골 왕공의 통혼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입관

전 30년과 입관 후 286년 동안 만주족 황실과 몽골 왕공들은 총 586차례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 중에 430번은 만주족 황실의 여성들이 몽골 왕공들에게 시집을 간 경우이고 나머지 156번은 몽골 왕공의 여성들이 만주족 황실로 시집을 왔다. 청 황제들은 대대로 몽골의 유력가문의 여성들과 혼인했고 몽골의 유력가문들은 청 황실의 일원이 되었다. 이를 통해 몽골의 지배층은 황족의 일원으로서 세습적인 직위를 보장받고 있었다.⁸⁾

이 책에 따르면 담비·수달·모피를 목적으로 한 러시아의 동진은 중앙유라시아의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맹렬한 기세로 시베리아를 장악하고 19세기 중후반까지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병합했다. 이로써 중앙유라시아는 청과 러시아라는 두 제국에 의해 완전히 분할되었고, 역사적 독자성과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분석하였다.

3. 중앙유라시아의 비상을 꿈꾸며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는 중앙유라시아의 역사개설을 목적으로 집필되었지만 책을 읽다 보면 단순한 개설서가 아님을 단박에 발견할 수 있다. 교양독자들을 배려한 친절한 설명과 읽기 쉬운 유려한 문체들을 한 꺼풀 거둬내면, 그 속에는 그동안 축적한 저자의 사료해석과 연구 성과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특히 지도 위에 구현된 지명, 선과 면으로 표현된 경계와 영역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가치를 가진 철저한 고증의 결과물임을 발견하는 순간 경외심마저 든다. 다만 중앙유라시아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주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별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만큼 중앙유라시아라는 시공간은 개척해야 할 새로운 연구 분야라고 하겠다.

8) Crossley, Pamela K. *The Manchus*,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1997.

이 책을 읽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과제 하나를 첨언하는 것으로 평자의 임무를 끝내고 싶다. 이 책에서 평자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프롤로그에 실린 유라시아의 생태환경을 담은 지도이다. 중앙유라시아는 삼림, 삼림초원, 초원, 사막과 반사막이라는 생태환경 아래, 냉대, 온대, 온대건조와 사막기후 등의 여러 기후대가 나타나는 곳이다. 다양한 생태환경과 기후환경의 교차는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인간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중앙유라시아 사람들은 수렵·목축·농경 등의 생업을 영위하며 서로 중층적이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 왔다. 대체로 이 지역민들의 주된 생업은 목축이다. 경우에 따라서 목축민이 사냥이나 간단한 농경과 상업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는 하지만, 건조한 기후의 특성상 동물을 순화시키는 목축이 더 유용한 생업환경이라 할 수 있다. 정주를 전제로 한 농경은 자연을 통제하거나 파괴해야만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유목은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기에 자연 순응적이다. 몽골에는 “영양도 화살 한 대에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부자도 눈보라 한 번에 모든 가축을 잃을 수 있다(Баатар боловч нэг суманд, баян боловч нэг шуурганд)”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취약한 자연환경에 노출된 유목민들에게 기후가 생존과 직결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앙유라시아 3,000여 년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연구하는데 기후변화는 중요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농경지대보다 생태와 기후의 영향이 국가 또는 집단의 이합집산과 연동될 수 있는 중앙유라시아 지역에서는 기후가 이 세계의 동시성과 통합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⁹⁾

이 책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인구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4~6세기는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과 동쪽 끝이 민족 대이동을 통한 대변동을 일으키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9) 페르낭 브로델 저,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까치, 1995, pp. 50-53.

9~11세기에 몽골계 집단이 동쪽 에르구네 일대에서 서쪽 부르칸 칼둔으로 이주해 왔고 이들로부터 파생된 몽골제국의 세계사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민족 대이동의 중심은 몽골초원에서 발생했고 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중앙유라시아 전역에 파급되었다. 그럼 이들은 왜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대규모로 이동을 해야만 했을까? 이에 대한 다양한 기존 연구들이 있지만, 몇 세기에 걸쳐서 민족이 대이동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와 밀접히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¹⁰⁾ 특히 한냉기로의 기후변화는 북방민들이 대규모로 서천(西遷)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연평균 기온이 저하되면 우선 수렵물이 이동하고, 이 수렵물을 따라 수렵민도 이동한다. 또한 몽골초원에서 가장 강력한 재해로 불리는 조드(Jud)의 출현이 잦아지고 이에 따른 가축의 몰살은 유목민들로 하여금 예전 초원 환경과 같은 곳을 찾는 이동으로 이어진다. 얼마나 많은 유목민이 이동하는지는 한·냉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4~7세기와 10~12세기는 한냉기로 중앙유라시아의 민족이동과 기후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기후변화는 민족이동 뿐 아니라 대제국의 멸망과도 관계될 수 있다. 중앙유라시아를 하나의 세계로 통합했던 몽·원제국의 갑작스런 멸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위계승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설이나 민족 차별정책에 따른 민심 이완설 등의 종래의 주장들로는 제국의 몰락을 분석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한냉기가 끝난 13세기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가 유지되었지만 14세기에는 동아시아가 소빙기로 접어들게 된다.¹²⁾ 연중 낮은 기온과 겨울의 한파 그리고 황하의 범람은 대기근과 전

10) Ellsworth Huntington, *The Pulse of Asia: A Journey in Central Asia Illustrating the Geographic Basis of History*, Boston 1907.

11) 신성곤, 「10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인구변동」, 『동아시아 문화연구』 48,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pp. 318-319. 張利, 「氣候變遷與我國古代北方民族南下」, 『許昌師專學報』 1997-4, 許昌師專科學校, p. 83.

12) 竺可楨, 「中國近代五千年來氣候變遷的初步研究」, 『中國科學:數學』, 中國科學院,

염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1330년에 기근과 전염병으로 10만 명이상이 사망했고, 1326년부터 1362년까지 총 15차례 걸친 전염병 발생은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지 못한 당시의 상황에서 엄청난 인명 손실을 야기했다.¹³⁾ 결국 몽골정부의 통제력을 벗어난 자연재해는 급속도로 민심을 이완시키고 제국의 몰락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이 국가의 존망과 관계됨은 중앙유라시아라는 특별한 기후환경에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생태와 기후 환경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도 직결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황사는 더 이상 봄철에 잠깐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사시사철 일상사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반도의 잦은 황사발생은 중앙유라시아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고비 일대와 내몽골 지역의 사막화 때문이라고들 한다. 최근 가축 개체수의 증가에 따른 초지 부족이 사막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¹⁴⁾ 물론 목민들의 가축 개체수의 증가가 초지를 감소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앙유라시아 중심부의 사막화 원인과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천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구 온난화의 일환으로 수분 증발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유라시아가 더 건조해지고 있는 현상이 사막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여기에 국가권력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생태환경의 파괴가 재앙 수준의 사막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 때 스키타이와 훈족의 활동무대였고 중앙유라시아 서부의 젖줄이라 일컫던 아랄 해는 세계 4대 내해(內海, 6만 8,000 km²)였으나, 현재는 호수의 80% 이상이 소금사막으로 변해 버렸다. ‘자연개조계획’이란 미

1973-2, pp. 175-17.

13) 郭珂·張功員, 「元代疫災述論」, 『醫學與哲學』 29, 醫學與哲學雜誌社, 2008, p. 60.

14) 이선화, 「중국 내몽고 초원의 위기와 사막화 논쟁 - 초원목계(草原牧鷄)가 등장하기까지-」, 『대한지리학회지』 47-6, 대한지리학회, 2012, pp. 836-852.

명하에 구소련이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강의 물길을 돌려 대규모의 관개농지를 만든 결과이다. 결국 유입량 부족으로 호수의 염분이 농축되고 생태균형이 무너져 풍요로웠던 아랄 해는 사라지고, 20세기 최악의 환경 재앙을 불러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중앙유라시아 동부의 신장, 내몽골, 서장(西藏), 영하(寧夏) 일대에서도 심각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은 원래 건조지역으로 예부터 물의 소비와 증발의 생태학적 균형 레벨이 유지되어 왔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유목민의 생존이 가능했다. 그러나 초원을 농경지로 바꾸려는 중국의 무분별한 서부지역 개발 논리는 대초원에 관개시설을 설치하고 수자원을 농업용수로 활용함으로써 토양을 건조시키고 염류화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환경 파괴는 중앙유라시아를 더욱 더 건조지대로 변화시키고 인간과 동물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사막화의 원인을 슬쩍 가난하고 소외된 유목민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들을 환경난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최소한의 파괴를 통해 자연에 순응해 온 유목적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중앙유라시아의 원형을 보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유라시아 연구는 역사학, 문화인류학, 생태학과 기후학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학제간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로서 “세계사의 무대에서 중앙유라시아의 역할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단계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는 저자의 마지막 말처럼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중앙유라시아는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유목제국의 고향으로서 주변 문명들에게 강대한 영향을 끼친 세계사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화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평자는 저자의 이 말이 이 책의 서술 목적이고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저자의 깊은 애정을 담은 이 책에 대해 평자의 일천한 지식과 필력의 부족으로 각각의 유기적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